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이 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완공된 신사옥으로 첫 출근했다. 이날 오전 나주시와 혁신도시지원단 소속 공무원은 센터 입구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붉은색 장미꽃을 전달하는 환영식을 가졌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르포 … ‘빛가람시대 개막’ 우정사업정보센터 업무 첫 날

“뭔 고생이람” 교통·편익시설에 푸념

사무실 못찾아 하동 대기도

4일 오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에 들어선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의 출근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입구에서 임시로 나주시 장과 혁신도시지원단 소속 공무원들이 나눠준 꽃을 받아드는 모습에서도 즐거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직원들의 얼굴엔 15개 이전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나주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설레임과 기대감 대신,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 피로함이 엿보였다.

직원들이 모인 장소마다 불편한 출근길에 대한 목소리가 가득했다. 한 직원은 “집 구하기 힘들어 광주역 친

구집에서 잤는데 400번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멀미로 고생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진월동에 원룸을 구해 30분간 버스를 타고 왔더니 정작 내리려는 안내 방송이 나오질 않아 침울했다”고 했다.

“차 문제로 고민하기 싫어 영산포에서 4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고도 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들어선 빛가람도시엔 전파연구소와 전파진흥원의 공사가 한창이다. 15개 이전 공공기관 중 제 모습을 갖춘 건물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유일하다.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엔 슬픔함이 가득했다. 오전 11시20분. 점심시간까진 20분이 남았지만 구내식당 앞에는

100m가 넘는 줄이 길게 서 있었다.

인근에 식당이 없어 승용차를 끌고 나가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직원들이 몰리면서다. 센터의 한 직원은 “점심시간이 봄비인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다. 빛가람도시가 제 모습을 찾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며 푸념했다.

이날 오전 환영식이 한창인 정문과 달리 후문 주차장에서는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물건을 나르는 일부들로 뒤죽박죽이었다.

복합기,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과 서류와 비품은 상자가 끊임없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들은 엘리베이터로 계속해서 물건을 날았다.

사무실로 들어선 직원들의 ‘흔한’

은 더했다. 업무 시작 시간인 9시가 넘었지만, 직원들은 각 부서에 쏟아진 짐을 정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느’자 모양의 건물에서 자기 부서를 찾지 못해 하등대는 모습도 보였고, 정수기가 없어 4층 식당까지 올라와 줄을 서서 물을 마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같은 층에 있는 매점으로 음료수를

사러온 직원들은 텅 빈 진열대를 보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 공무원은 “지금 주변도 그렇고 정시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차차 필요한 부분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박정렬기자 halo@

“센터 이전 나주 지역 경제발전 밑거름 될 것 확신”

노재민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이전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 이전이 나주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 15개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입주를 마치고 4일 첫 공식 업무에 들어간 노재민(53)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국가 균형발전의 주춧

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서울 본사 전산시설을 업무 차질 없이 나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5년 6월 정부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뒤 2010년 11월 이전 대상 15개 공공기관 중 첫 건축허가를 받고 개장하기까지 7년9개월이 걸린 셈이다. 노 센터장은 이전에 따라 아이를 두고 나주에 내려온 주부 직원,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

원 등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직원 가운데 미혼인 여성들이 많고 우정정보센터 특성상 아인이 찾은데 차안 유지가 가장 걱정이 된다”며 “지역민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노 센터장은 “신사옥 착공을 위한 토지매입이 늦어져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착공 이후 속도가 빨라져 예정된 이전 일정을 맞추게 됐다”며 “혁신도시 원안 이전을 희망하는 지

역민들의 뜻을 감안해 한 순간도 한 눈 팔지 않고 예정된 이전 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센터 주변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 근무 중인 우정가족들의 상징은 성실함이며, 그런 만큼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원 등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직원 가운데 미혼인 여성들이 많고 우정정보센터 특성상 아인이 찾은데 차안 유지가 가장 걱정이 된다”며 “지역민들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역민들의 뜻을 감안해 한 순간도 한 눈 팔지 않고 예정된 이전 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센터 주변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 근무 중인 우정가족들의 상징은 성실함이며, 그런 만큼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 한자·한문 (특급·1급·2급·3급) 지도자사 자격 등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 09:10 ~ 12:40 / 오후 14:00 ~ 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아동지도사 3.7(목)오전 •한자의 기본윤리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부수체결·서자소학
•영심보감·추구 10개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소학·대학
•중·중·격문화요결 10개 96시간 30명

특급(총장) 3.6(수)오전 •논어·맹자
•고문진보 10개 96시간 30명

★유능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종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자격취득기회

▶수 강 력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종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 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부근)

E-mail : hanja-exam@hanmail.net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오늘 상무·금남로4가·남광주역서 ‘예술무대’ 개막

10월까지 매주 월~금曜일 주제 있는 행사

새봄을 맞아 광주지하철 주요 역에 서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5일 상무역과 금남로4가역, 남광주역 등 3개역에서 15개 단체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2013 지하철 예술무대’ 개막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날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월~금曜일 상무역, 금남로4가역, 남광주역에서 색소폰과 오카리나 연주회, 댄스, 퍼포먼스, 기요무대, 국악연주, 예술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는 요일별로 특색있는 테마무대를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요일별 주제가 있는’ 문화행사로 만들어내기로 했다.

이번 문화공연에 참가하는 공연 단은 광주에서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 공연자들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무료공연을 선사하기로 했다.

문화공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팀의 이력이나 사연도 다채롭다.

‘선율 6060’은 1960년대에 함께 근무한 초등교사 동료들이 결성한 색소폰 동호회이며, ‘하남농협주부대학 공연팀’은 부채춤과 가야금 병창으로 민속예술제 수상 경력을 가진 실력파다.

‘황선복과 소리 내는 사람들’은 2집 까지 낸 정식 가수팀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에서 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くだ 우리 가락 연구회’는 교도소와 양로원, 농아학교 등에서 전문 국악공연을 펼치는 6인조 팀이다. ‘최영선 어울림 한마당팀’은 서울 대체학과 노회연구팀에서 개발한 우리 춤 저자팀으로 복을 이용한 경쾌한 난타공연이 발길을 사로잡는 팀이다. 수령댄스협회와 김문우 댄스·페포먼스와 재즈·힙합 공연의 지역 대표주자들이다.

도시철도공사 이호준 사장은 “봄을 맞아 지하철 문화공연이 시민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드리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매일 새롭고 열정적인 문화지하철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황한식 광주지법원장

광주시 선관위원장 취임

황한식 광주지법원장
이 4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23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화임 황한식 위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 조지타운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황한식 위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 조지타운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황한식 위원장은 “국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한 좋은 정치를 지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용해아파트재건축조합 공고 제2013-1호

분양신청공고

목포시 건축과 - 231571(2012. 12. 1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구 용해아파트 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조합정관 제39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에서 발송한 분양신청통지 및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양신청 기간

2013년 3월 4일 ~ 2013년 4월 24일 까지(45일간 / 국, 공휴일 제외)

2. 분양신청 장소

목포시 용해동 205-1번지 아파트 단지 내 구 용해아파트 조합사무실

3. 분양신청 자격

구 용해아파트 조합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등에 해당되는 자.

4.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당 조합사무실에 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5.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